

원저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 분석

백승일 · 안중철 · 김영진 · 김형석 · 권기록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ype Analysis of Pharmacopunctur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aik Seong-il, Ahn Joong-cheol, Kim Young-jin,
Kim Hyung-suk and Kwon Ki-rok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Type analysis is done on pharmacopunctur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rom the inaugural issue to August 2006 issue.

Methods : Journal search engine KSI ISS and KSI KISS were mainly used and additional sources were complemented by the index issue and English journals.

Results :

1. The number of journal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is 438 papers.
2. For type analysis of the type of studies, experiment paper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355 cases, followed by 70 for clinical trials, and 14 for literary studies.
3. For type analysis of the pharmacopuncture extracts, bee venom related papers were most numerous with 101 cases. And nextis 52 experiment papers and 41 clinical trials.
4. Type analysis on the type of illnesses listed in experiment papers, 81 for anti-cancer · immune disorders · anti-oxidation, 61 papers concentrated on arthritis, etc.

Conclusion : Since 1984 to August 2006 issue ranging 22 years, type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journals pertaining to pharmacopuncture has risen steadily over the years and nearly half of papers published recently are dealing with pharmacopuncture. Pharmacopuncture is a treatment method

based on the unique theor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effort and academical approach on pharmacopuncture are expected to receive positive evaluation.

Key words : Herbal acupunctur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Pharmacopuncture

I. 서론

하나의 치료법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의학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치료법들이 시도되었고, 또한 사라졌을 것이다.

한의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한 20세기를 지나면서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이침, 전침, 레이저 침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침구학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약침과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약침요법은 그동안의 침구요법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한 경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던 치료형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약재의 화학적인 자극을 경혈에 추가한 독특한 한국 한의학의 치료행위이다¹⁾.

특정 부위에 특정 한약재를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한다는 약침의 기본 원리는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의 《經絡》이라는 책²⁾을 통하여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많은 신의료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지만 많은 의구심과 비판 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약침요법에 대한 한국 한의학계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 검토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한국 침구학의 대표적 의료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의 침구영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회지가 바로 대한침구학회지이다. 대한침구학회지는 1984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3년간 총 61권의 학회지(2006년 9월 기준)를 발간하였으며 수록된 논문만도 1,268편에 이른다.

이에 저자들은 그동안 침구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 중 약침관련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시도되었던 약침관련 연구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한 결과 유익한 결론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방법

1. 연구대상

대한침구학회에서 1984년 창간호부터 2006년 8월까지 발행한(23-4호) 61권의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약침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대한침구학회지의 Home Page(www.acumoxa.or.kr)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논문 검색 프로그램인 (주)한국학술정보의 KSI ISS를 통한 논문검색과 학술데이터 베이스 검색 사이트인 KSI KISS에서 수침, 약침이나 봉독, 봉침 등의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논문은 그동안 발간되었던 대한침구학회지 논문집과 대한침구학회지 합본호 색인집을 참조로 하여 검색된 총 438편의 논문을 정리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검색된 논문을 발간 연대와 주제별로 세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주제별 분류는 문헌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문헌논문은 내용이 문헌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였거나 어떤 질환에 대하여 여러 문헌에 나타난 바를 개괄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논문을, 실험논문은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세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실 내에서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발표한 논문으로 규정하여 분류하였고, 임상논문은 인간을 상대로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나 어느 질환의 치료경과를 발표한 case report를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 중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항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뇨기질환, 간·담도계·독성, 신경계, allergy(천식 포함), 당뇨,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고,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과 기타 연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986년 3권 1호에 이종국, 강성길의 「방풍수침이 진통·소염·해열 및 진경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으로 게재된⁴⁾ 이후 꾸준히 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93년 10-1호에 13편이 게재된 것을 기점으로 매년 두 자리 숫자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998년에 처음으로 3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연 4회에서 연 6회로 발간이 늘어난 2001년부터는 해마다 약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Fig. 1).

그동안 침구학회지에 수록된 총 1268편의 논문 중 약침관련 논문이 438편으로 전체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다(Fig. 2).

III. 결 과

1. 연도별 약침 연구논문의 게재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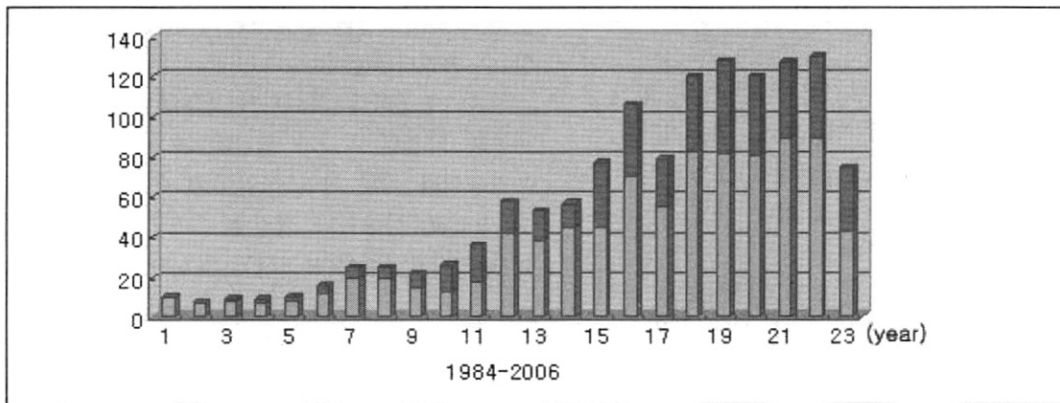


Fig. 1. Pharmacopuncture 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rom the 1984 to August 2006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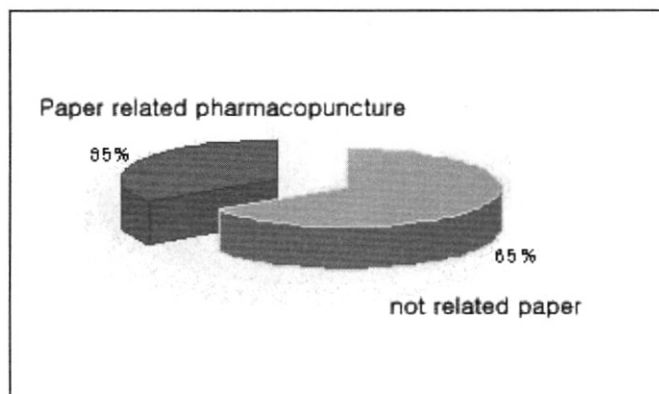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paper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is 438 out of 1268 in the total paper

2. 논문의 유형별 분류

논문의 유형별 분류는 문헌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438편의 논문 중 문헌논문이 14편으로 3.2%를 차지하였고, 실험논문이 355편으로 전체의 81.0%, 그리고 임상논문이 70편으로 16.0%를 나타내었다(Fig. 3).

약침과 관련된 문헌논문은 총 14편이었고, 이 중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봉약침과 관련된 문헌 논문은 문헌적 고찰과 국내의 연구 동향, 그리고 질환별 PubMed 검색 결과 등이 소개되어 있었다. 이 외에 약침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문이 각 2편씩, 그리고 선행 연구로서 족력, 자하거에 대한 문헌적 고찰 등이 각 1편씩 소개되고 있었다.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향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뇨기질환, 간·담도계·독성, 신경계, allergy(천식 포함), 당뇨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 논문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 분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기한 영역과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355편의 실험 논문 중 향암·면역·항산화 관련 논문이 81편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골·관절염 관련 논문이 61편으로 17.2%를, 간·담도 독성평가 모델이 40편으로

약 11.2%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혈압이나 혈액 관련 모델 논문과 비뇨·생식기 관련 논문이 각각 33편으로 약 9.3%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진통·소염·항경련과 관련된 논문이 27편으로 7.6%, 신경계 모델이 18편으로 5.1%를 나타내었고 매우 광범위한 모델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과 중풍, 구안와사 등의 신경계 질환, 침감지표 연구,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 결과 침구학의 특성을 반영하듯 추간관 탈출증이나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70편 중 45편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고, 임상적으로도 약침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Fig. 5).

또한 중풍이나 구안와사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과 약침의 침감과 관련된 논문, 그리고 약침의 부작용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도 각각 4편씩 보고되고 있었고, 통증이나 월경통, 불면, 암 등과 관련된 논문이 각각 1편씩 보고되고 있었다.

3. 약침의 종류별 연구내용 분석

종류에 따른 약침의 분류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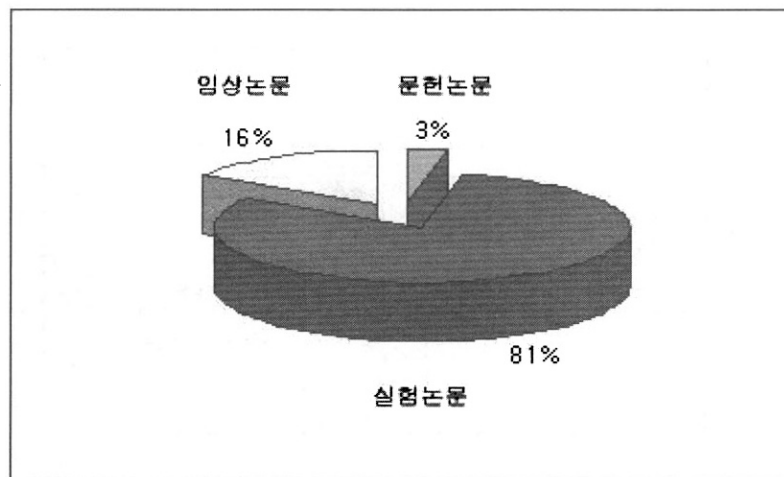


Fig. 3. The classification of paper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Experiment paper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355 cases, followed by 70 for clinical trials, and 14 for literary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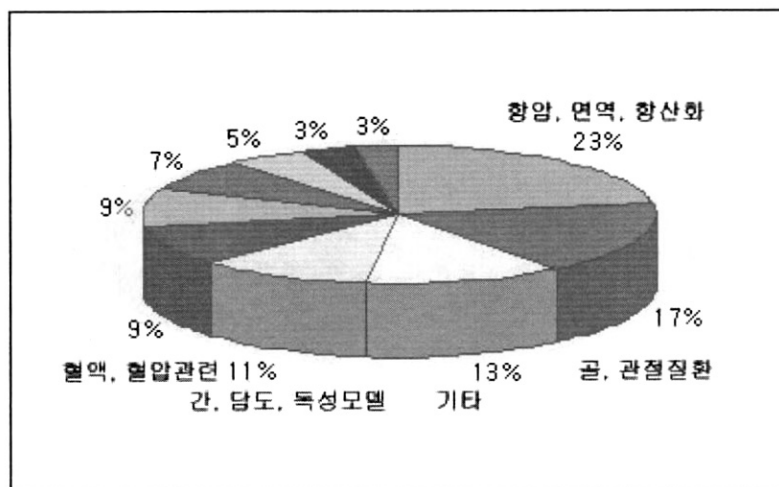


Fig. 4. Type analysis on the type of illnesses listed in experiment papers, 81 for anti-cancer • immune disorders • anti-oxidation, 61 papers concentrated on arthritis, 40 for liver related toxicity, and a lot of studies related blood pressure, thrombus, and other disorders were fo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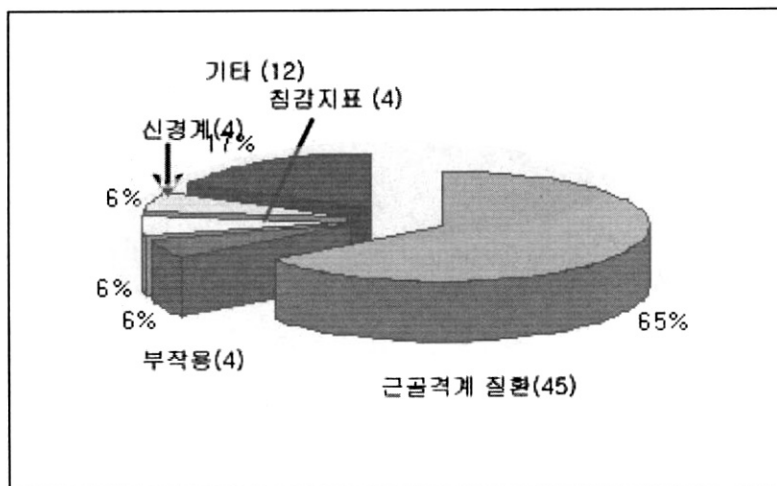


Fig. 5. Type analysis of papers associated with pharmacopuncture in clinical trials, musculo-skeletal disorders comprised 45 out of 70 papers, followed by CVA, side effects, and pain control

남상천 선생의 《경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락 약침 중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담, 우황, 사향 관련 기제와 호도, 홍화, 녹용 등의 윤제 약침을 경락 약침으로, 김정언 선생이 《기적의 약침요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류약침의 형태를 팔각 약침으로 분류하였고, 벌의 독을 치료에 이용하는 봉약침, 태반 가수분해 추출물인 자하거 약침, 단일 한약을 약침제제로 만든 단미 약침, 현재 임상에 경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처방을 이용한 복합 약침, 상기의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양약제제나

cobra 독 등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이 분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약침을 동시에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기가 어려웠으나 상기한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고자 노력하였고, 두 종류 이상이 복합된 경우는 동시에 포함하여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1) 약침의 종류에 따른 논문 게재 현황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시행한 결과 단일 한약을 약침으로 만들어 연구한 논문이 193편으

로 44%를 차지하였고,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101편, 경락약침이 75편, 복합 약침이 39편을 나타냈다. Cobra 독이나 증류수 혹은 생리식염수 등의 기타 약침이 12편, 팔강약침과 자하거 약침이 각각 9편 게재되고 있었다.

2) 단미 약침의 유형 분석

단미 한약제에 대한 종류별 약침 분류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무려 86종의 단미 한약이 약침으로 만들어져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 중 당귀미를 포함한 당귀 약침 관련 논문이 11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인삼·홍삼 약침이 8편, 시호와 단삼 약침이

각각 7편, 그리고 오공과 황기, 작약 약침이 각각 6편 게재되었다.

3) 봉약침의 연구 유형 분석

봉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헌 논문이 8편, 실험 논문이 52편, 임상 논문이 41편으로 총 101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이는 단일 약침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고, 특히 임상논문의 게재 비중은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임상 논문의 58.6%를 차지하여 봉약침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침구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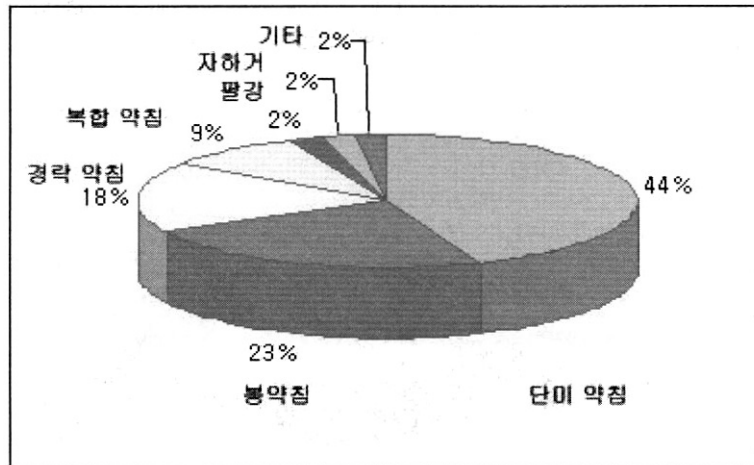


Fig. 6. For type analysis of the pharmacopuncture extracts. Many kinds of herbs were made to pharmacopuncture and used for experimental studies. Bee venom related papers were most numerous with 101 cases, 23 for deer antler pharmacopuncture, 22 for safflow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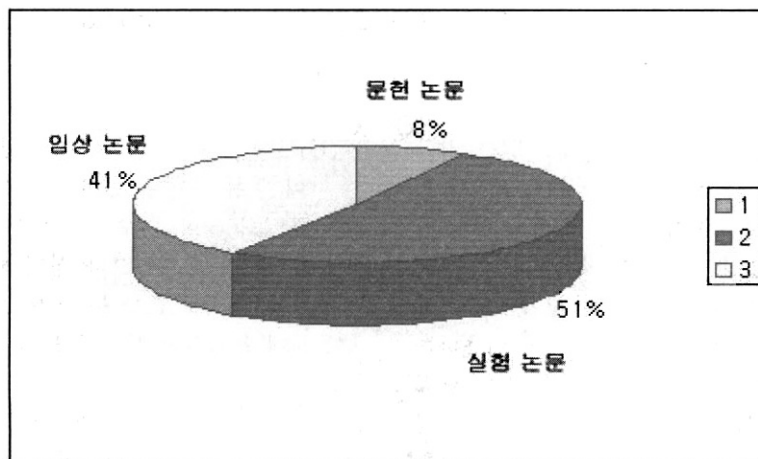


Fig. 7. bee venom related papers were most numerous with 101 cases. And it was consist of 8 literary studies(1), 52 experiment papers(2) and 41 clinical trials(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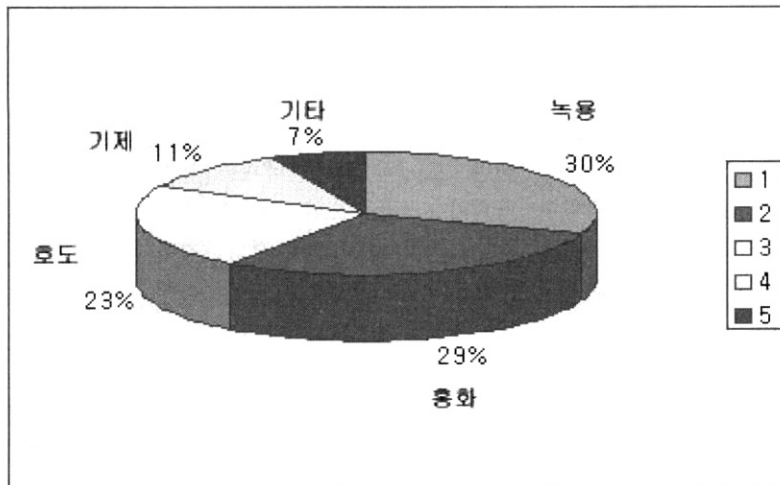


Fig. 8. For type analysis of the meridian pharmacopuncture extracts. 23 papers for deer antler pharmacopuncture, 22 for safflower, etc.
1-deer anter pharmacopuncture, 2-safflower seed oil, 3-walnut oil, 4-meridian pharmacopuncture, 5-another pharmacopuncture.

4) 경락 약침의 연구유형 분석

경락약침과 관련된 논문은 총 75편으로 이 중 실험논문이 62편, 임상논문이 13편 발표되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라 연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녹용 약침이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홍화자 약침이 22편, 호도 약침이 17편, 그리고 응담·우황·사향 등의 기제 약침이 8편 나타났으며 기제와 윤제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도 5편이 있었다.

IV. 고찰

약침요법은 질병의 치료에 유관한 혈위나 압통점 등에 기미론을 따른 정제된 한약제재를 주입하여 자극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구현한 신침요법으로¹⁾, 국내에서는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의 《경락》이라는 책에²⁾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약침요법은 이전의 침구요법이 질병 치료에 유효한 경혈 등 체표에 침이나 뜸 등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한데 비해 한약재의 화학적인 자극을 결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독특한 치료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현재의 신경차단술과 유사한 ‘孔穴封閉’와 같은 방법이 유사한 시기에 개발되었고³⁾, 중·

서의 결합이라는 학문적 방향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약침제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약침요법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한국 한의학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1970년대 말부터 한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약침요법은 배우기가 쉽고 사용이 간편하며 치료 효과가 빠른 등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 한의사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방 의료행위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계의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러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어야 한다.

국내의 학회 중 약침의 연구와 관련된 학회는 대한약침학회와 대한침구학회가 대표적이고, 또한 가장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대한침구학회는 한국 한의학계의 학회 중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로 1984년 창간호가 발행된 이후 2006년 9월 기점으로 22년간 61편의 학회지를 발간하였고, 게재된 논문편수만도 1268편에 이르는 한국한의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지이다.

이에 저자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약침 관련 논문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약침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고자 대한침구학회

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대한침구학회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검색란과 논문검색프로그램인 KSI KISS에서 약침, 수침, 봉약침, 봉독 등의 색인으로 검색되어진 논문, 그리고 기존에 발간된 학회지를 참조하여 창간호부터 23-4권까지 총 61권 1,268편의 논문 중 약침의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 438편(부록 참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86년 3권 1호에 이종국, 강성길의 「방풍수침이 진통·소염·해열 및 진경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으로 게재된 이후⁴⁾ 꾸준히 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회지의 발간이 연 6회로 늘어난 2001년부터는 해마다 약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었으며 약침관련 논문이 전체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침구학회를 중심으로 약침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침관련 논문의 유형 분석에서는 문헌 연구가 14편, 실험논문이 355편, 그리고 임상논문이 70편 보고되었는데, 실험논문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있었다(Fig. 3).

문헌논문은 14편 중 봉약침 관련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의 소개나 안전성과 관련된 논문이 각각 2편, 그리고 실험논문의 사전 문헌고찰 형태로 자하거와 죽력이 각각 1편씩 구성되어 있었다.

실험논문은 주제에 따라 관절염, 항암(면역, 항산화 포함), 혈관성, 통증이나 염증관련, 비뇨기질환, 간·담도계·독성, 신경계, allergy(천식 포함), 당뇨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총 355편의 실험 논문 중 항암·면역·항산화 관련 논문이 81편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었고, 골·관절염 관련 논문이 61편으로 17.2%를, 간·담도 독성평가 모델이 40편으로 약 11.2%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혈압이나 혈액 관련 모델, 비뇨·생식기 관련, 진통·소염·항경련, 신경계 등 광범위한 모델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임상논문은 척추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과 중풍, 구안와사 등의 신경계 질환, 침감지표 연구,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 기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침구학의 특성을 반영하듯 근·골격계 질환이 70편 중 45편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었고, 임상적으로도 약침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Fig. 5).

그 외에 중풍이나 구안와사, 약침의 침감과 관련된 연구, 약침의 부작용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작업을 시행한 결과 단일 한약재를 약침으로 만들어 연구한 논문이 193편으로 44%를 차지하였고,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가 101편, 경락약침이 75편, 복합 약침이 39편으로 나타났다. Cobra 독이나 증류수 혹은 생리식염수 등의 기타 약침이 12편, 팔강약침과 자하거 약침이 각각 9편 게재되고 있었다.

단미 한약재의 종류 분석에서는 193편의 논문 중 무려 86종의 단미 한약이 약침으로 만들어져 연구에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 당귀미를 포함한 당귀 약침 관련 논문이 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삼·홍삼 약침이 8편, 시호와 단삼 약침이 각각 7편, 그리고 오공과 황기, 작약 약침이 각각 6편 게재되었다.

봉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헌 논문이 8편, 실험 논문이 52편, 임상 논문이 41편으로 총 101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이는 단일 약침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것이었고, 특히 임상논문의 게재 비중은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임상 논문의 58.6%를 차지하여 봉약침과 관련된 임상적 연구가 다른 약침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내용의 구성도 문헌적 고찰과 실험논문 그리고 임상논문의 비가 가장 이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경락약침과 관련된 논문은 총 75편으로 이 중 실험논문이 62편, 임상논문이 13편 발표되었다. 약침의 종류에 따라 연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녹용 약침이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홍화자 약침이 22편, 호도 약침이 17편, 그리고 웅담·우황·사향 등의 기체 약침이 8편 나타났으며 기체와 윤제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도 5편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윤제가 기체에 비하여 89%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체의 처방이 웅담이나 우황, 사향과 같은 희귀약재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복합제제로 구성되어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침에 대한 영

문법표기도 Acua-acupuncture, Herbal acupuncture, 그리고 Pharmacopuncture 등이 사용되고 있었고, 봉약침의 경우 봉독, 봉독약침, 봉침독 등 다양한 표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언어가 시대적 사회성을 띄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표현이 변할 수 있지만 workshop 등을 통하여 한의학계 구성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용어의 표준화 작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침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개인의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나 한의학이 임상의학임을 전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임상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특히 단미 약침제제는 무려 86종의 약침이 실험에 사용되었는데, 하나의 약침이 만들어져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들, 예를 들면 약침의 문헌적 선행연구와 조제과정의 규격화, 독성시험, 안정성(stability) 및 안전성(safety) 시험, 치료기전 연구와 치료 효능에 대한 임상적 연구 등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약침이 임상에서 정착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많은 주제는 오히려 학문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약침에서 이러한 연구의 흐름이 충족되고 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며, 하나의 연구 결과가 다음의 연구로 이어지거나 혹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의학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약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 방법을 진행한 중복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현성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마도 사전의 기획단계에서 이전의 논문 검색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우연히 동일한 주제로 연구 수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에는 Internet 검색과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약침 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이를 통한 한의학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V. 결 론

1984년 창간호부터 2006년 8월호까지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 논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약침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게재편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었고, 전체 논문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었다.
2. 논문의 유형은 438편 중 실험논문이 355편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논문이 70편, 문헌논문이 14편 게재되어 있었다.
3. 문헌논문은 봉약침과 관련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4. 실험논문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항암·면역·항산화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고, 골·관절염 관련 논문과 간·담도 독성평가 모델이 다음으로 많았다.
5. 임상논문은 추간관 탈출증이나 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중풍이나 구안와사, 약침의 침감, 그리고 약침의 부작용과 관련된 연구 등이 뒤를 이었다.
6. 약침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서는 단일 한약재를 이용한 단미약침 연구, 봉약침과 관련된 연구, 경락약침 등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VI. 참고문헌

1. 대한약침학회. 약침요법 시술 지침서, 대한약침학회, 1999 ; 13.
2. 남상천. 경락 I, 신일문화사, 1967 ; 7-31.
3. 손인철, 이문호. 약침요법, 일중사, 1999 ; 7.
4. 이종국, 강성길. 방풍수침이 진통 소염 해열 및 진경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1986 ; 3(1) : 11.